

종교교육학연구 제51권. pp.177-19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7. 3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원리

문 선 애
선문대학교

〈요 약〉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교육의 원리를 밝히는 원론적 연구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교육은 ‘참부모교육’이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종교교리에 연원하고 있는 부모교육원리는 ‘참부모교육원리’라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구원의 가치를 인간 삶의 근본이며 토대로 말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을 개인적 구원의 완성이요, 사회적 구원의 출발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을 개인의 집합으로 보고 있는 경향과 달리 가정을 존재론적으로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며 관계 맺는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완성에서 부모는 상당한 위상을 갖게 된다. 가정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주체적 입장과 위격을 갖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부모됨은 가정완성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참부모교육의 뒷받침이 요청된다. 이러한 참부모교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됨을 말하는 것이고, 참부모됨은 곧 부모가 자신들을 수련하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원리를 이루고 있다. 참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참심정의 체휼, 참인간의 수련,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 부모 자신이 먼저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참부모교육은 그러한 참부모를 닮아 자녀로 하여금 유일신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의 원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원리라고 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 참부모됨, 참심정, 참인간, 참사랑

I. 시작하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구원의 가치를 인간 삶의 근본이며 토대로 말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을 개인적 구원의 완성이요, 사회적 구원의 출발로 보기 때문이다.¹⁾ 다시 말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을 개인의 집합으로 보고 있는 경향²⁾과 달리 가정을 존재론적으로 보아³⁾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며 관계 맺는 하나의 단위로 구분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이상과 목적은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 곧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재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목적인 개인완성⁴⁾과 가정완성을 이루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주관성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는 하나님의 3대 축복으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⁵⁾

이 때 가정완성은 개인완성과 주관성완성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⁶⁾ 따라서 가정완성은 인간의 역사적이며 사회적인 차원도 포함하는 중층적 의미를 지닌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완성은 개인완성과 사회적 완성의 순차적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통시적이며 집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완성에서 부모는 상당한 위상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가정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주제적 입장과 위격을 갖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이상가정의 부모됨은 가정완성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교육의 뒷받침이 요청된다. 즉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한 인간의 생애에서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⁷⁾ 부모됨도 그 과정에서 저절로 얻어지는 열매로만 생각해서는

-
- 1) 개인구원과 사회구원의 기독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8), 196-200쪽 참조.
 -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가정의 정신문화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46-51쪽.
 - 3) 김형효, 「한국인의 사회적 불행과 가정의 존재론적 가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가정의 정신문화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 6-20쪽.
 - 4) 『원리강론』에서는 개인완성을 개성완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완성이 개인의 성품을 완성하는 차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성완성을 사회와의 관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인완성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1), 46쪽 참조.
 - 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하나님의 제1축복은 개인완성, 제2축복은 가정완성, 제3축복은 주관성완성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 삶의 길을 ‘3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위의 책, 44쪽.
 - 6) 종교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구원(salvation)은 인간의 완성 혹은 완전(perfection)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원리강론』의 견해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구원과 완성을 유기적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
 - 7) 예를 들면 부모됨을 쉽다거나 섭리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윤혜경,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2014), 14쪽 또는 김명희, 『부모교육과 상담』 (서울: 동문사, 2011), 18쪽.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론⁸⁾을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교육 곧 참부모교육의 원리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교육의 장: 가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가정은 참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그 목적과 과정만큼 장소도 매우 중요한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은 바로 이상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⁹⁾ 즉 하나님은 이상가정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고 본다.¹⁰⁾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을 통일하여 개인완성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개인완성은 근본적으로 가정완성의 토대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개인완성은 가정완성을 목표로 하며, 가정완성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개인완성 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선한 가정을 완성할 때 하나님의 창조이상 곧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된다고 본다. 선한 가정이 확대되어 선의 사회와 세계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중시하고 선한 가정을 책임적으로 이루는 일은 개인완성과 사회완성의 과정 중 핵심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은 왜곡되었다. 현실적으로 가정과 사회가 죄악과 불행에 놓이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에 연유한다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기원론적이며 존재론적으로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랑과 행복을 위한 책임적 자아가 되지 못한 인간이 이상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이상가정을 시작으로 하는 사회 또한 이루어 내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주로서의 책임과 은총으로 재창조의 구원섭리 곧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다시 이루는 복귀섭리로 계속되며, 시대에 따른 정류를 펼치면서 가정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귀섭리의 장으로서 가정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이상가정은 창조본연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성서에 나타난

8)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론에 관한 내용은 문선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론」, 『신종교연구』 제32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5), 165-191쪽 참조.

9)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304권 (서울: 성화출판사, 2000), 324쪽.

1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46-49쪽 참조.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했던 가정을 말한다.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의 부모, 부부, 자녀가 하나님의 참사랑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상가정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사랑 곧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4대 사랑이라고 하며, 이러한 4대 사랑을 완성한 가정을 이상가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4대 사랑의 자녀, 형제, 부부, 부모가 일체를 이루어 완성되는 자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이 결혼하여 첫사랑을 맺는 자리는 모든 완성의 결실이며 중심이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상하(부자관계)가 연결되면 좌우(부부관계), 전후(형제관계)가 연결되어 가정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완성은 하나님을 찾아 개개인의 심신(心身)이 통일된 자리요, 남자와 여자가 통일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평화와 행복이 결집되는 토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이와 같은 이상가정이 국가와 세계를 넘어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지상세계와 영계(靈界)를 총칭한 천주(天宙)까지 확장되어 전개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상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에서 국가는 가정보다 더 큰 가정형, 세계는 국가보다 더 큰 가정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주는 세계보다 더 큰 가정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이상가정의 구조와 내용을 더 확장한 것이 국가, 세계, 천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가정은 세계완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가정주의¹²⁾의 이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가정주의는 개인의 가정화라고 말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에서 개인완성이란 개체로서의 완성은 물론 인격적 성품의 완성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개인완성이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수수작용(授受作用)에 의해 통일되어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은 개인완성에 머무르지 않고 가정완성을 그 이상과 목적으로 한다. 즉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은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은 인간이 개인완성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닮게 되고 그러한 토대 위에 가정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가정주의는 개인의 가정화라는 이념 하에 개인완성과 가정완성을 신인협동(神人協同)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가정화를 말하는 세계평화

11)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참가정과 세계평화』 (서울: 성화출판사, 2000), 402-404쪽.

12) 문선명 선생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의 가정주의를 참가정주의라고 일컫는다. 이에 대한 내용은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축복과 이상가정』 (서울: 성화출판사, 1995), 188쪽 참조.

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가 결코 간과하지 않는 점은 ‘개성진리체(個性眞理體)’¹³⁾로서의 개인이 갖는 개별적 가치이다. 이는 가정이 전체주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는 존재의 이중목적¹⁴⁾을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완성의 목적은 가정완성과 결부되며, 가정완성은 개인완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가 말하는 개인의 가정화는 가정의 존재론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생명 보전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체출 등을 통해서 수련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의 통전성에 관심한다. 개인완성을 통한 가정완성은 물론 가정을 통한 개인의 완성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계의 단절로 빚어지는 불행의 극복도 뜻하는 것이며, 과도한 응집으로 빚어지는 이기적 가족주의의 극복도 의미한다.

나아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는 사회의 가정화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가정화란 가정의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를 토대로 가정을 사회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의 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이기적 가족주의의 극복을 위한 담론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사회의 가정화는 사회가 가정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회의 가정적 공동체성을 존재론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사회의 가정화를 논해야 할 필요가 요청되고 있다.¹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가 말하는 가정의 공동체성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존재론적 당위성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정의 창조를 인위적이지 아니라 천부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의 공동체성은 존재론적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생명의 보전성이다. 가정은 생식과 양육의 기능이 있으며, 생명에 대한 책임성이 부여되어 있다.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존되어야 한다. 생명 창조의 기능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생명에 대한 존중과 보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 터전이 바로 가정이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화는 가정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인간화를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의 인간화란 각 구성원의 존엄성과 가치, 자기 결정권이 보호되는 것이다. 가정에서의 인간화 정도가 높을수록 구성원간의 상호 지지가 이루어지며, 동시에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이 중요시되는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인간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라고 볼 때, 사회적 지위와 능력에 의하여 가족의 구성원간의 관계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또한 가정의 사회화는 가정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성평등을 사회화하는 것이다. 가족

13) 개성진리체는 개체마다 보편성 외에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상을 말한다.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180쪽 참조.

14) 이지현 편, 『개인, 공동체, 교육 II: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서울: 교육과학사, 1997), 53-56쪽.

구성원 간에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관계의 우위성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심정과 사랑을 통한 관계의 평등성을 추구한다. 사회의 제도적 편중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인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은 기본적 특징이 된다. 역할의 고유성과 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차등은 있을 수 없다.¹⁵⁾

이처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주의 곧 개인의 가정화와 가정의 사회화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며, 참부모교육의 원리를 규정하는 토대가 된다.

Ⅲ.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교육의 이념과 방법

1. 참부모교육의 이념

참부모교육의 이념은 먼저 부모가 자녀 앞에 참부모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사상요강』의 교육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이란 하나님을 닮도록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며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하는 노력이다.”¹⁶⁾ 따라서 참부모교육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닮도록 자녀를 기르고 보살피는 것이며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神性)과 신상(神相)을 닮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신상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이성성상 곧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 그리고 개별상(個別相)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다. 먼저 하나님의 이성성상 중 성상과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인격에 있어 마음과 몸의 온전한 수수(授受)에 의해 신인일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¹⁷⁾ 이는 수신(修身)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성성상 중 양성과 음성을 닮는다는 것은 남녀의 온전한 조화와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정완성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은 개성진리체로서 개별적 특성을 지닌다. 하나님의 개별상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 개성의 존귀함을 닮는 것을 말한다. 무릇 피조물의 특성은 하나님의 속성의 하나인 개별상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모두 귀한 것이지만, 자녀로 창조된 인간의 개성은 더욱 존엄하고 신성하며 귀중한 것으로 본다.

15) 예를 들면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의 부계사회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추세는 비부계 중심의 가족의식도 커져가고 있다. 안호용,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2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9쪽 참조.

16) 통일사상연구원, 앞의 책, 345쪽.

17) 위의 책, 53쪽.

하나님의 신성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인 심정, 이법, 창조성을 계승하여 완전성, 번식성, 주관성을 닮는다는 것을 말한다.¹⁸⁾ 먼저 하나님의 신성 중 하나인 완전성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됨으로써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靈人體)¹⁹⁾를 성장시켜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속받으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성 중 하나인 번식성을 닮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녀번식의 단계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조화를 닮으라는 뜻이다. 남녀에 있어 그 조화란 부부의 조화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남편으로서의 도리와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번식하라는 뜻이다. 또한 하나님의 신성 중 하나인 주관성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 만물을 주관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공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성을 닮는다는 것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이기적 주관이 아닌 공적 주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계승한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일정한 성장기간이 있어야 한다.²⁰⁾ 피조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소생, 장성, 완성의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 성장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신상과 신성을 닮게 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이러한 하나님 닮기는 인간이 이루어야 하는 책임분담이 따른다. 인간이 책임분담을 완수할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인간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성장기간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야 할 자녀의 책임분담을 위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신앙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성과 신상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 닮기라고 하는 부모교육의 이념이 세워진다.

2. 참부모교육의 방법

일반적으로 부모교육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부모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다시 말하면 부모교육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아동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자녀양육법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사회적응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은 자녀발달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상호

18) 위의 책, 346쪽.

19) 영인체는 육신의 죽음 이후 영계에서 영존(永存)하는 실존체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66-68쪽 참조.

2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58쪽.

21) 윤혜경,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2014), 15쪽.

작용 기술과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며, 자녀의 문제를 예방하는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부모교육의 일반론에 비추어 보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교육은 부모가 참부모가 되어 자녀를 참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종교적 부모교육이며 영성교육²²⁾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는 이때 종교적 부모교육의 재개념화도 요청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위기에 이른 현대에 이르러 종교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교육의 패러다임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³⁾ 현대에 이르러 종교적 갈등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교적 다원사회에서 종교적 자기정체성의 확립이나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평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종교교육은 종교인의 실천적 삶과 성숙을 지향하는 종교교육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하고, 종교적 부모교육도 부모의 실천적 삶과 성숙을 지향하는 종교적 부모교육으로 재개념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개념화된 종교적 부모교육은 자녀를 위한 종교적 실천과 성숙한 삶을 지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적 부모교육은 부모와 자녀의 종교적 삶을 성숙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적 부모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종교적 삶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종교적 부모교육은 자녀가 이웃 종교와의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곧 자녀가 종교적 다원사회에서 살아갈 때 종교적 평화를 이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부모교육은 자녀가 해방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부모교육은 자녀로 하여금 왜곡된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 뒤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는 해방의 교육이 요청된다. 이는 소외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그들의 고통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실천적 삶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종교적 참부모교육은 변화된 시대에 대안적 새로움을 패러다임으로 실천적 삶과 그 성숙을 위한 부모교육이라고 하는 재개념화가 그 토대에 자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교육은 종교적 영성의 성숙을 위한 교육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하나님의 시대경륜에 따라 재개념화된 참부모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참자녀로서 성장시키고자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하나님 중심의 실천적 삶을 말하고 있는 참심정체교육, 참인간 수련교육 그리고 참사랑 실천교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부모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51쪽.

23)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50쪽.

1) 참심정 체휼교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참심정을 알게 하고 체휼하는 부모교육이다. 참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을 말한다. 따라서 참심정 체휼교육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복귀 섭리에서 인간 때문에 겪어온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부모가 되는 교육을 뜻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느끼는 고통의 심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란 자신의 책임과 관계없이 악의 세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체의 고통을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만큼 하나님도 고통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하나님의 고통을 해방하고자 하는 참심정의 부모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참심정의 참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참심정의 부모됨은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여 그 고통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책임적 부모가 되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고통의 하나님을 해방시키는 참심정의 부모는 하나님의 실체로서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참심정을 체휼하는 참부모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참심정 체휼의 참부모교육은 자녀를 참자녀 곧 참심정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부모교육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참심정의 체휼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 특히 고통의 심정을 알아차리고 그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책임적 자아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부모로서 참심정을 체휼하고 닮게 할 수 있는 참부모교육을 전제로 한다. 체휼과 전승은 참부모교육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심정의 체휼교육으로 나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심정의 체휼교육은 인간의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직접주관권 곧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는 과정과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으로서 기도와 정성의 방법이 필요로 된다. 하나님 앞에 대상으로 서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²⁴⁾

2) 참인간 수련교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참인간을 알게 하고 수련하는 부모교육이다. 참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아래 있는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이성성상²⁵⁾의 인간임이 전제

24)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56쪽.

25)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외형(外形)과 내성(內性)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그 내성을 닮아 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반드시 그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닮아 난 그 외형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꼴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전자를 성상(性相)이라 하고 후자를 형상(形狀)이라고 한다. 그런데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23쪽.

된다. 이때 이성성상이 의미하는 것은 성상 곧 마음이 주체적인 입장에 있으며 형상 곧 몸은 마음의 대상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음이 있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²⁶⁾ 마음이 성상으로서 몸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입장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볼 때, 성상인 하나님이 인간의 원인이며 주체적인 입장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의 수수관계를 이루게 될 때 온전한 인간 곧 참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성상으로서의 인간은 개체를 넘어서 개체와 개체의 관계에서도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²⁷⁾ 인간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존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유다. 이러한 이성성상은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데 이 때 상대적 관계란 창조목적에 중심하고 일체화되는 합목적적 관계²⁸⁾를 의미한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성 자체 때문에 차별될 수는 없다. 이처럼 이성성상으로서 인간은 관계 맺음을 전제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목적인 개인완성을 개체의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전체의 목적이 되는 가정완성과 피조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는 주관성의 완성을 성취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이상을 성취해야하는 인간의 책임적 참여에 의한다. 책임적 인간은 일정한 성장기간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창조된 원리에 따라 성장함으로써 완성해 나간다. 즉 인간은 일정한 성장기간을 거쳐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미완적 존재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는 인간을 ‘되어가는 책임적 존재(becoming responsible being)’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는 책임분담을 준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성까지 닮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위업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시기 위함”²⁹⁾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인간 이해는 죄인으로서의 인간도 말한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은 창조본연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이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성품 곧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부패시켜 타락성을 가진 죄인이 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상은 본연의 인간상이 완전히 왜곡되고 부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 이후 중단된 바 없는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본연의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타락에 의해 오염된 인간성 곧 시기, 불의한 욕망, 질서

26) 위의 책, 4쪽.

27) 위의 책, 32쪽.

28) 위의 책, 34쪽.

29) 위의 책, 61쪽.

문란, 범죄 증식의 어리석음 등으로 혼숙된 인간성을 벗고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섭리라고 이해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섭리는 타락인간을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한다. 따라서 복귀하는 인간은 참인간의 전형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와 함께 본연의 인간상을 회복해 나간다. 그러므로 복귀하는 인간의 이상적 인간상은 메시아를 닮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메시아는 죄에서 해방된 이상적 인간상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메시아를 닮은 인간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자다. 성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인간이다.³⁰⁾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성자는 천주(天主) 곧 유형실체세계와 무형실체세계라고 하는 두 세계의 이상적 인간상이다.³¹⁾

성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상적 인간상의 수승한 경지를 말하며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복귀의 길을 따라 도달해야 하는 본연의 인간상이며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성자는 창조본연의 인간을 말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기독교가 영웅적인 덕목을 실천하고 비범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비범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성자는 그와 같은 성인은 아니다. 나아가 ‘피흘림 없는 순교’의 시대에 영적 순교³²⁾로 불리는 성인도 아니다.

또한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개념은 가장 완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 보통사람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지고지선(至高至善)한 덕성을 지닌 위대한 존재로 미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성인은 초인적인 능력과 하늘에서 나온 신비한 힘을 가진 특별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교의 성인관이 특별한 존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란 ‘어진 분’³³⁾이란 의미도 있어 왔기 때문이다. 유교의 성인은 이상적 인격으로 추존되어 왔다. 이러한 유교의 성인관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자 개념 곧 창조본연의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자는 참부모되는 하나님의 참자녀이며, 창조본연의 참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성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복귀되어야 할 보편적 인간상이다.³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이루어진 참가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창조본연의 인간을 이룬 참부모 메시아를 닮아야 한다. 참부모 메시아를 닮는 삶은 참부모 메시아를 통해 중생 곧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거듭나고 참가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자에 이르

30)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가정맹세』 (서울: 성화출판사, 2001), 155-156쪽.

31) 가정맹세에 나타난 성자의 개념은 효자, 충신, 성인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그 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평이 다를 뿐이다. 가정맹세에서 효자는 가정, 충신은 국가, 성인은 세계 그리고 성자는 천주의 범주로 구분되어 설명된다.

32) 이진구, 「기독교의 이상인간형」, 『종교와 문화』 제7호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312-313쪽.

33) 박미라, 「중국 유교의 이상 인간형」, 『종교와 문화』 제7호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224-225쪽.

34)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가정맹세』, 154쪽.

는 길은 참부모 하나님과 그의 창조목적의 이상과 일체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된다. 이를 일컬어 ‘신인애일체이상(神人愛一體理想)’³⁵⁾이라고 한다.

참사랑을 바탕으로 신인일체를 이룬 사람은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인애일체를 통해 성자에 이른다. 이러한 성자는 궁극적으로 인간 타락 이후 고통의 심정³⁶⁾으로 집착되어온 하나님을 해방³⁷⁾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통 때문에 고통받아온 하나님을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성자의 성자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때문에 고통 받는 분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인간 고통의 궁극적 해방은 고통 받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과 인간은 고통의 심정을 터전으로 일체를 이룬다. 성자의 신인일체는 고통과 고통의 해방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이상적 인간상인 성자는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의 고통으로 알고 그 고통을 해방하고자 하는 참인간³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자의 길은 성자의 격을 이미 이룬 참부모 메시아를 닮는 것이다. 메시아를 닮는 길은 곧 메시아를 따르는 길이다. 이러한 닮음과 따름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이며, 참부모교육이 지향하는 참인간 수련교육이라고 이해된다.

3) 참사랑 실천교육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참사랑을 알게 하고 실천하는 부모교육이다.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창조본연의 사랑을 뜻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을 찾기 위해 피조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간 창조목적은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기쁘고 자 하였던 것이다.³⁹⁾ 이 때 기쁨은 독자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무형이거나 실체거나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전개된 대상이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자체의 성상과 형상을 상대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기쁨이 생기는 것이다.⁴⁰⁾

3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맹세에서 신인애일체이상을 이룰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다.

36)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54-356쪽 참조.

37) “지금까지 선생님을 중심삼고 이런 역사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선생님이 해원성사를 얘기했는데, 해원이 뭐예요? 해방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통 밑창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해방하려면 쓰레기통까지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없이 다 좋다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해방되는 거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가정맹세』, 311쪽.

38) “고생길에서 출발해서 고생의 생애로 마치고 가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입장에 서느냐 하는 것이 효자로서, 하늘을 향한 하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대해 그렇게 해서 애국심을 남기고 싶고, 성인 성자들이 완성시키지 못했던 그 세계를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완성권으로 이행시키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위의 책, 157쪽.

3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44쪽.

40) 위의 책, 45쪽.

인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자녀를 낳는 목적은 참사랑으로 이상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참사랑의 참부모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때 참사랑의 참부모가 되는 것은 참자녀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교육은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부모는 물론 자녀도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 거짓된 사랑은 폭력과 전쟁의 현실 속에 있는 위장된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이란 평화의 사랑이다. 참사랑의 드러남은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의 평화로부터 시작된다. 마음과 몸이 갈등 속에 있지 않고 평화롭게 관계 맺을 때 비로소 한 인간의 참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도 그와 같은 평화가 이루어질 때 참사랑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계로 확대되어 드러날 수 있다.⁴¹⁾

참사랑은 참사랑의 주체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변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참사랑의 주체는 참부모이다. 이 때 참부모는 하나님의 존재 양상을 의미하며 인간의 이상형을 말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참부모되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참사랑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이상과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참사랑은 실천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이러한 의미를 지닌 참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와 같은 참사랑 실천교육으로 참부모교육은 이루어질 수 있다. 참사랑의 실천은 부모와 자녀로 관계 맺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궁극적인 참사랑의 실천은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야 한다. 이는 가정이 개인과 사회완성의 과정으로 그 존재론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IV. 끝맺으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지향하는 교육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기초로 하는 부모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참부모교육은 참부모됨을 말하는 것이고, 참부모됨은 곧 부모가 자신들을 수련하고 부모가 자녀를 교육

41)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리의 힘을 중심삼고 주체 되는 마음은 대상 되는 몸을 거느리고 하나님과 일체이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말하는 완성한 인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몸을 굴복시켜 완성된 남자와 여자, 즉 선남선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남편과 아내로 맺어질 때, 땅 위에 하늘이 계획하신 이상적 한 가정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가정은 이상적 사회·국가·세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 가정의 원동력은 참사랑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대상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희생적 사랑,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 참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19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6), 118-119쪽.

하는 원리를 이루고 있다. 참부모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참심정의 체휼, 참인간의 수련,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 부모 자신이 먼저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참부모교육은 그러한 참부모를 닮아 자녀로 하여금 참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교육원리의 근거를 ‘하나님 닮기’에서 찾고 있다. 하나님 닮기란 시공의 세계에 출현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부모되는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이란 하나님을 닮도록 자녀를 양육시키는 것이며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인도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은 참부모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참부모됨에 기초하는 교육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참부모교육원리는 이와 같은 교육원리를 어떻게 교육과정화할 것이며,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교육대상에게 적용할 것인가를 궁구해야 할 것이다. 가정의 가치와 가정의 존재론적 의미를 강조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가정에서 이루어야 하는 참부모교육이 어떻게 학교교육과 조화를 이루며 일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연구해야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고범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8.
- 권건일. 『글로벌 시대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2011.
- 김명희. 『부모교육과 상담』. 서울: 동문사. 2011.
- 김항제. 『통일교의학연구 I』. 아산: 선문대출판부. 2002.
- 김항제. 「통일교의 신정론(Theodicy)」. 『신종교연구』 제22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0.
-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성서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19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6.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편.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304권. 서울: 성화출판사. 2000.
- 문선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론」. 『신종교연구』 제32집. 서울: 한국신종교학회. 2015.
- 박미라. 「중국 유교의 이상 인간형」. 『종교와 문화』 제7호.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축복과 이상가정』. 서울: 성화출판사. 1995.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세계평화』. 서울: 성화출판사. 2000.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가정맹세』. 서울: 성화출판사. 2001.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손봉호. 『고통 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손원영. 『영성과 교육』.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안호용.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제19권 제2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윤혜경.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2014.
- 이재영. 『통합종교교육론』. 아산: 선문대출판부. 2010.
- 이재일. 『통일종교교육개론』.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5.
- 이지현 편. 『개인, 공동체, 교육 II: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서울: 교육과학사. 1997.
- 이진구. 「기독교의 이상인간형」. 『종교와 문화』 제7호.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1.
- 정현숙. 『부모학』. 서울: 신정. 2007.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가정의 정신문화적 의미와 가족주의 문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Anthony Feiler. 이미숙 역. 『부모참여와 교육』. 서울: 학지사. 2014.
- Thomas Gorden and Judith Gorden Sands. 김인자 역. 『부모역할 배워지는 것인가』.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1996.

원고접수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일: 2016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 2016년 7월 8일

연구자소개: 문선애

- ① 전공: 상담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 ② 관심영역: 부부상담, 자녀교육, 성교육
 - ③ 주요논저: 『자문화중심주의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통일교 축복가정자녀의 배우자선택 유형변화와 그 의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부모론』
 - ④ E-mail: sunaemoon@gmail.com
-

Abstract

True Parent's Educational Principle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Moon, Sun-Ae

Sun Moon University

This thesis is a theoretical study to attest Parent's principle of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FFWPU). In FFWPU, Parent's education refers to True Parent's education. Thus FFWPU rooted based on religious dogma and its fundamental doctrine is called True Parent's principle education. FFWPU believe value of family unit salvation is a primary element of human life and its principle because it views family as completion of individual salvation and the beginning of society salvation. In other words, FFWPU view family as a separate entity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whereas in sociological perspective family is considered as an extended entity from individual component, a group of individuals.

Parents are given with great status in completing as a family. In that leading position parents can be the motivation to accomplish family perfection. Therefore, in FFWPU parenthood is critical than any other values and absolutely cannot be done without True Parent's education. In short, True Parent's education means education of parenthood, which means parent's training themselves and also education the children with principle. The path of becoming True Parent requires experiencing God's true heart, training as a true human being, and practicing true love that lead us to resemble God and eventually become true parent. Additionally, True Parent's education aims those true parents to become true children of God through their own children. True Parent's education is said to be the educational principle for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Key words: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True Parent, True Parenthood, True Heart, True Human Kind, True Love